

(0. 들어가면서)

한국사회 - 역사적으로 살펴 보아도 사회가 증변해 왔음 (군사화, 민주화 등)

최근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시민의 힘으로 사회가 바뀌었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음

→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커졌음.

★ 이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성교육"

현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올바른 시민성교육이란 무엇인가?

→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노티나복도서관을 사례로 뒤서 연구해 봄.

(1. 선행연구)

1-1. "시티즌십(시민성)"이란 일반적으로 근대 사회의 성립 이후에

탄생한 국민국가가 스스로 구성원을 규정하여 그들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적 및 정치적인 개념으로서 이해되어 있음

T.H. 마샬 - 시티즌십이란 역사의 흐름 또한 사회적 계급 변화 속에서 그 대상이 변해 왔음.

성인교육 - 성인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시티즌십 권리와 의무, 개념과 역할을 이해시키는 것.

1-2. 한국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티즌십교육

★ 민주주의교육 - 1987년 이후 사회에 있는 많은 것들이 민주화 되어 갔으나 시민들의 이해 부족이 문제화되면서 시작된 교육

ex.) 선거권리위원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 공식적인 교육의 한계점 (교육을 공공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정함)

사회교육에 대한 기대

1-3. 사례 분석에서 쓰는 3가지 항목

현대 사회에서 성장되기를 기대되는 시민 = 행동적인 시민 (active citizen)

(능동적으로 사회의 올바른 모습을 생각하는 시민)

행동적인 시민에게 필요한 능력 = 시티즌 리터러시

★ 시티즌 리터러시란?

시민들이 단순히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이 사는 지역에 애착을 가져, 애착이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일을 스스로 맡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나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스킬은 다름.

사례 분석에서

- 1. 지역 또한 사회에 대한 애착
- 2. 자활성
- 3. 변화에 대응하는 힘

이 3가지의 항목을 분석 단계에서 볼 것임

(2. 용인시의 도시화 배경과 문제)

1990년대 중반이후 아파트의 지속적인 건설

공공주택 건설 이외에도 민간주택개발로 인한 주택 건설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
cf. 1994년 준공률지제도

- 용인시의 건설시기별 주택비중 - 1990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 14.1%
2000년 대에 건설된 주택 60%를 넘음
(특히 수지구 71.3%, 기흥구 68.5%로 높음)

→ 이러한 도시화로 인해 생긴 문제

- 도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 개발만 진행되므로 용인시에 들어온 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었음.
- 원주민들이 귀향해 가는 동네에 불안을 가짐.

(3. 사례 조사 - 느티나무도서관)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박관장님 저서 및 도서관 홈페이지)
인터뷰 (2017년 12월 13일, 2018년 8월 8일)

3-1.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설립 배경

2000년 2월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개관

→ 박관장님은 자기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음

개발로 인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없었음

"이 동네에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 있었으면..." 생각하게 됨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문화적 공동체로서 "사랑문고" 형식을 선택함

사비 2억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오픈.

3-2.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활동

개관 한 달로 "도우미 회" 생김 - 엄마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함

→ 엄마들이 하는 모습을 본 어린이들도 스스로 도와주게 됨

★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감.

3-3.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새 역할

- 어린이도서관으로서 개관한 지 5년 (2005)

* 매우 빠른 속도로 도서관이 성장 - 등록회원수 12,000명
도서 소장수 15,000권

→ 용인에서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 도서관이 대중매체에서 보도됨.

- * 개관 당시부터 대는 어린이들도 컸음
- * 용인시의 다른 시민단체들도 활동 시작
- 곳이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안 해도 괜찮다.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하는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하는게 바람직함
- 2007년 느티나무도서관으로서 제 시동

3-4. 느티나무도서관의 원칙

- (도서관다운 - 다양성, 일상성, 복돋음)
- (도서관의 방식으로 - 자발성, 느긋함, 긍정의 힘)
- 어린이도서관으로 동네 어린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나
그때도 지금도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이라서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함

3-5. 느티나무도서관의 "일상"

특별한 행사를 통하지 않아도 도서관의 이용 방식이 느티나무도서관의 원칙을 반영함

- (1) 도서관 안에서 잠담을 해도 됨
 - (2) 신서를 바탕으로 한 책 대출
 - 책 한권 한권에 대한 방식 10권을 돌려도 좋음
 - (3) 책 방식을 스스로 제자리에 꽂아라 함
 -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다른 책을 빌려 갈 수 있는 기회
 -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할 수도 있음
- 이용자들의 자발성에 기대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기를 바램.

3-6. 실행 ① 경기도지하철서제 "열린 도서관"

"시민의 힘으로 작동하는 열린 도서관"

2016년 신원당선 동천역, 2017년 신원당선, 분당선 정자역에 마련한 무인도서관
누가 언제 어떤 책을 빌려갔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시민들이 스스로
책을 잘 지키고 대출, 반납을 함
→ 시민을 믿고 맡겨 보는 실행

3-7. 실행 ② "사회를 담은 컬렉션"

도서관 상에 마련된 컬렉션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구상하는가?

- ① 사서들이 회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고음
(베스트셀러라고 반드시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님)
- ② 시민들이 알고 싶은 주제를 사서들에게 요청하여 책, 잡지, 신문기사, 영상 등을
수집하여 스캔하기도 함.

→ 책 한권을 구매하는 것도 시민들의 지원금을 쓰는 것 = 신중하게 내용을 살펴봐야 함
 도서관 1층에 마련된 컬렉션 ... 7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찾기 쉽게 홈페이지를 구성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쉽게 이름을 짓음
 ⇒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라는 원래의 역할을 최대한 맡음.

3-8. 공동장 "마을포럼"

마을 = 지방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공동체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

(1) 마을 포럼 개최를 위한 준비

★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기회 (X 수동적)

→ 시민들이 중심이 되며 포럼을 진행해야 하고 또한 사회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권력이 있는 주제를 선별

예) 2017년 마을포럼 주제 ... 일상속에 있는 민주주의
 (가족, 연애, 식사 등)

-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를 래퍼런스패널로서 초대
- 도서관 1층에 게시판 설치 → 주제에 대한 질문 혹은 의견을 시민들한테서 모집
- 주제와 관련된 책이나 자료들을 모아서 컬렉션

(2) 마을 포럼 당일, 즉흥 정보공유

- 동네 사람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
-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게시판에 있던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함
-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지식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함

(4. 사례분석)

4-1. "도서관"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4-1-1.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은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만을 맡는 "서비스센터"가 아님
공공성을 누리는 장소이기도 하나 공공성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체득(俾得)"하는 곳임
 - 어린이도서관으로서 느티나무가 탄생했을 때 그 공간의 역할은 "기반이 진행되며
 불안정한 지역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었음
 그럼에도 굳이 "도서관"을 선택한 이유는?

"느티나무도서관 말고도 지역에 있는 어떤 도서관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자유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잡아놓고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워가는 곳이 도서관이다."

→ 그 대상이 처음에는 어린이들이었고 지금은 시민전체가 됨.

★ 시티증심교육도 교육을 맡는 기관에 따라 이루어져 하는 것이 다름.

느티나무도서관에서는 사회에 있는 모든 것이 주제가 되며 공공성을 체득하기를 바람.

4-1-2. 공공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일

도서관 —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음

★ 공공도서관 —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

성과를 어필 안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함

→ 성과를 숫자로 나타낼 수밖에 없음 (이용자수, 대출도서수, 문화프로그램 개최수)

★ 사립도서관 — 숫자의 어필에서 자유로움

책을 몇권 빌려갔는지, 행사에 몇명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님

→ 도서관에서 이주교자 하는 내용에 힘을 더 쓸 수 있음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 약함

→ 기업 또한 시민들에게 도서관이 지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는지 그 내용으로 어필해야 함

4-2. 느티나무도서관에 있는 시티즌십교육

실행연구에서 뽑은 3가지 항목별로 분석

(1) 지역 혹은 사회에 대한 애착

→ 가르침을 받았다고 시민들이 애착을 갖는 것은 아님.

개발을 통해 몸인시에 들어온 시민들도 "여기인들이에게는 여기가 고향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됨

★ 동전마을네트워크 — 느티나무도서관처럼 지역에 기반을 두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서로 생각,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2) 자발성

예1) 도서관 이용에 관한 문제

① 컴퓨터 이용 ... 컴퓨터로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간섭안하지만 적당히

이용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길 바랬으나

혼자 하려 하면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음

→ 한 시간 이용하면 저절로 전원이 꺼지게 설정.

② 음식 ... 커피는 원래 도서관 내에서 마셔도 되는 거였으나 그렇게 하면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이 나타났음,

→ 주방에서만 음식 허가

⇒ 개인의 자유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보아도 그 사람이 좋더라도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처음부터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용자들을 만나 실행해 보고 안 되면 대책을 생각함.

⇒ 자발성을 중요하게

예2) 마을포럼

↳ 사람들 프로그램 = 수동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마을포럼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3) 변화에 대응하는 힘

① 도서관 자체가 변화하면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시작했으나 개발 및 시민들에 상황에 맞게 공공도서관으로 변화
→ 도서관이 스스로 변화가모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변화

② 뉴티너무도서관에서 실행하는 것

사회를 담는 컬렉션, 마을포럼 → 둘다 사회 현황에 맞게 내용이 구성됨
필요한 정보의 정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알려주기도 함.
→ 도서관 ↔ 시민 상호적인 관계

4-3. 뉴티너무도서관의 정량

뉴티너무도서관 -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 + 스스로 예상치도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곳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위함

× 도서관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

눈앞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것.

(5. 결론)

"가르치지 않아도 더 큰 배움터"

도서관은 시민을 계몽하는 곳이 아님.

시민들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시민들에게 맡김.

→ "교육"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될지 애매하지만 행동자인 뉴티너움을
제동하는 장소로서 사회에 필요한 시민성 교육을 맡고 있음.

뉴티너무도서관 "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공간

이용하는 사람은 그냥 이용자로만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포"

★ 한국사회 - "살기 힘들다"고 직관적인 평가를 받는 면도 있으나
시민들이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힘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자발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민성 교육의 시작.